

柳得恭의 『四郡志』 연구*

— 서명 변경과 저술 목적을 중심으로

金鍾福**

- | | |
|---------------------------|--------------------------|
| I. 머리말 | V. 正統論의 역사 인식에서의 漢四郡의 위치 |
| II. 『四郡志』의 저술 배경 및 준비 과정 | VI. 맺음말 |
| III. 『四郡考』에서 『사군지』로 서명 변경 | |
| IV. 『사군지』의 저술 목적 | |

• 국문초록

최근 유득공의 『四郡志』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하나는 서명이 『四郡二府考』에서 『四郡考』를 거쳐 『사군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漢四郡이 조선의 영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득공은 自國史의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사군을 자국사의 正統으로 인정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제어 : 유득공, 사군지, 사군고, 한사군, 이부, 정통론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연구교수)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국립안동대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柳得恭(1748~1807)은 기존의 역사서들이 新羅正統論에 의거하여 소극적 내지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渤海史를 신라와 발해가 양립한 南北國論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내지 긍정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고,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국내외 사서들에서 발해와 관련된 사료들을 수집·정리하여 『渤海考』를 1784년에 편찬하였다. 그리고 문제의식에 비해 내용상 미진함과 오류가 있었기에 1791년 무렵에 한 차례 대폭 수정하고 그후 두 차례 추가로 수정·보완하였다.¹⁾

그의 만년작인 『四郡志』는 漢四郡에 대한 저술인 만큼 『발해고』 편찬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의 연장 선상에서 쓰여진 것임은²⁾ 쉽게 수긍이 간다. 『사군지』가 국내외 사서와 지리서들에서 한사군과 관련된 기사들을 수집·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기획 의도나, 서두의 四郡圖(및 二郡圖)와 四郡表를 통해 한사군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변화를 도표화한 형식은 수정본 『발해고』의 그것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사군지』는 현재 4종의 필사본과 1종의 활자본이 전하는데, 그중 정본은 고려대 도서관 소장 육당문고본 『泠齋書種 四郡志』(①)이다. 이는 판심 하단에 ‘古芸書屋藏’을 새긴 烏絲欄의 전용 원고지에 필사한 것인데, ‘고운서옥’은 유득공의 堂號이며, 여기에만 서문이³⁾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⁴⁾ 나머지 3종의 필사본 중 하나는 판심 하단에 ‘自然經室藏’이 적힌 전용 원고지에 필사한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아사미문고본 『四郡志』(②)이다.⁵⁾ 다음은 당호 표시가 없는 烏絲欄에 필사한

1) 유득공 저, 김종복 역, 『정본 발해고』, 책과함께, 2018, 18~21면 및 33~35면.

2) 송기호, 「柳得恭의 생애와 저술」(初出은 1993),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03면.

3) 「四郡志 序」는 유득공 저, 김윤조 역, 『누가 알아주랴』, 태학사, 2005에서 처음 번역 소개되었다.

4) 여기에는 李建初(1849~?)의 주석 2개를 포함하여 7개의 頭註와 後記가 있다. 참고로 일본 京都대학교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泠齋書種 渤海考』에도 두주로 李建初의 주석이 3개가 있다(유득공 저, 김종복 역, 앞의 책, 30~31면).

5) 여기에는 ‘淺見圖書’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원래 일제 때 경성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한편 朝鮮古書刊行會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많은 고서를 수집했던 淺見倫太郎(아사미 린타로, 1869~1943)이 소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필사본과 아사미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의 사군지 해제(필자는 김윤조) 및 해외소장기관—개인수집가—아

단국대 퇴계기념도서관 소장본 『四郡志』(③)이다. 마지막은 서명이 ①과 같지만 판심 하단에 ‘玉露山房’이 적힌 전용 원고지에 필사한 修綆室 소장본 『泠齋書種 四郡志』(④)이다.⁶⁾ 그리고 활자본은 1910년 朝鮮古書刊行會에서 간행한 『朝鮮群書大系』 13집에 수록된 『四郡志』(⑤)인데, 이는 ②를 대본으로 한 것이다.⁷⁾

『사군지』의 목차는 ①과 ③의 목록에 따르면, 圖, 表, 建置沿革, 山川, 事實, 名宦, 人物(附謫徙), 封爵, 方言, 土産, 古蹟, 題詠 등의 12개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에도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②와 ④의 목록에는 人物 다음에 謫徙가 독립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人物(謫徙附)로 되어 있다. 내용은 거의 같지만 오탈자나 이체자 표기 등의 차이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4종의 필사본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군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유득공이 眞番郡의 위치를 (고)조선의 북쪽에 비정하고 4郡이 2府로 변했다는 종래의 견해를 부정하였음이 소개된 바 있다.⁸⁾ 그러나 활자본(⑤)을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①에 수록된 서문을 보지 못하여 저술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사군지』의 여러 필사본들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각 조목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⁹⁾ 그 결과 한사군의 지리 비정에서 유득공이 이른바 眞番在北說을 주장하는 근거나 다른 논자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해졌고, 『사군지』와 韓致雍의 『海東繹史』가 내용상 서로 밀접함이 확인되어 후자를 통해 전자의 缺字가 보충되었으며,¹⁰⁾ 『사군지』 「土産」에

사미 린타로 항목 참조.

- 6) 이는 한말 장서가인 沈宜平(1836~1919)이 필사한 것이다. 심의평이 필사한 『泠齋書種』에 대해서는 박철상, 2014, 「신발굴 『古芸堂筆記』 검토--稿本の再構 및 修政 과정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41, 313~315면 참조. 필자는 박철상 선생님의 후의로 ④를 열람하였는데, 여기에는 서문과 ①의 頭註 및 後記가 없다. 열람을 허락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군지」(필자는 鄭求福) 및 박미선, 「『사군지』 「명환」 · 「인물」조의 특징과 편찬의도」, 『역사와 실학』 79, 역사실학회, 2002, 9면.
- 8) 정진현, 1998, 「한사군의 역사 『사군지』」, 『실학자 유득공의 고대사 인식』, 신서원 및 오영찬, 「조선 후기 고대사 연구와 漢四郡」, 『역사와 담론』 64, 호서사학회, 2012, 14·21면.
- 9) 김성현, 「『사군지』 「건치연혁」조에 나타난 한사군 위치 비정의 특징」,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022; 김현정, 「18세기 후반 역사지리 인식과 유득공의 『사군지』」,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022; 김경화, 「『사군지』 「사실」조를 통해 본 유득공의 한국고대사 인식」,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022; 박미선, 2022, 앞의 논문; 윤성재, 「『사군지』 「토산」과 유득공의 북방 인식」, 『역사와 실학』 79, 역사실학회, 2022.

인용된 각종 물산에 대한 해설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사군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렇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유득공이 『발해고』 서문에서 각 편목에 ‘考’를 붙인 것은 ‘史’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겸손함의 표현이지만,¹¹⁾ 『사군지』 서문에서는 남들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학설을 견지할 뿐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점을¹²⁾ 근거로, 『사군지』는 별도의 지리서이며 ‘考’에서 ‘志’로의 전환은 지리고증이 곧 역사학이라는 인식 전환을 보여주며, 이는 정조대 역사지리 인식의 또다른 결과물로 보는 견해가¹³⁾ 그중 하나이다. 또한 유득공은 한사군이 삼국과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가졌다고 보거나¹⁴⁾ 한사군을 자국사의 정통으로 파악했다는 견해들이¹⁵⁾ 또다른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군지』를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유득공의 『발해고』 초고본과 수정본이 각각 朴趾源의 『三韓叢書』와 徐有渠 등의 『小華叢書』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¹⁶⁾ 유득공의 『사군지』도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사군고』라는 명칭도 등장하므로, 편찬 배경 및 과정을 고찰하면서 考에서 志로의 명칭 변화에 과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유득공이 『사군지』를 편찬한 목적에 대해 그 서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나아가 유득공이 설정한 자국사

10) 『四郡志』 「名宦」조의 ‘張統’에는 ‘庖爲之置樂浪郡(案, □治柳城), 以統爲太守’라고 결자가 있는데, 『海東繹史』 권5, 世紀5, 『附四郡事實』에는 ‘愍帝建興元年 …… ○ 四月遼東張統 …… 庖爲之置樂浪郡(案, 僑治於柳城), 以統爲太守. 遵參軍事’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군지』의 缺字가 ‘僑’임을 알 수 있다(박미선, 앞의 논문, 25면). 단 박미선은 조선고서간행회본에는 빈칸이 없다고 하였지만, 여기에도 빈칸이 있다.

11) 『渤海考』 「渤海考序」 “…… 撰次渤海事, 爲君·臣·地理·職官·儀章·物産·國語·國書·屬國九考. 不曰世家·傳·志, 而曰考者, 未成史也. 亦不敢以史自居云”.

12) 『四郡志』 「四郡志序」 “…… 而爲漢四郡之志, 自以爲庶乎其是矣. 而去漢千有餘年, 人孰信之哉? 不信, 吾且守吾說而已.”

13) 김현정, 앞의 논문, 67~71면 및 장병진, 「유득공의 역사 인식과 『사군지』」, 『한국사연구』 201, 한국사연구회, 2023, 201면.

14) 김경화, 앞의 논문, 80면.

15) 박미선, 앞의 논문, 34면. 장병진, 앞의 논문, 208면.

16) 유득공 저, 김종복 역, 앞의 책, 33~34면.

체계에서 한사군의 위치는 어디인지, 과연 정통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군지』의 저술 배경 및 준비 과정

朴宗采(1780~1835)의 『過庭錄』에 따르면, 아버지 朴趾源이 1784년에 ‘중국과 우리 문헌에 다 같이 실려 있거나 양국의 交涉과 관련된 사실들[華東文獻之互見錯出者 及事實之中外交涉者]’을 뽑아 『三韓叢書』를 만들고자 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 즉 1) 특정한 책 전체를 편입한 것, 2) 거질 가운데 한두 조목만 인용한 것, 3) 본디 그런 책이 없지만 여기저기서 글을 뽑아 모아서[鈔輯] 책으로 만들어 편입한 것, 4) 없어진 지 이미 오래여서 그 이름만 전해오는 책에 대해 按說을 붙여 후세에 널리 고찰하기를 기다린 것 등이다. 모두 178종으로 기획되었지만, 책으로 필사가 완료된 것은 20~30권 정도였다. 그런데 178종의 서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渤海國志』와 함께 『四郡二府考』, 『樂浪七魚考』, 『平百濟碑』 등이다.¹⁷⁾

『발해국지』는 834~835년에 발해를 방문하였던 唐나라 張建章의 저술로 『新唐書』 『藝文志』 등에 이름만 전하므로 4)에 해당되는데, 아마도 박지원이 여기서 착안하여 유득공에게 각종 사서에서 발해 기사를 수집·정리하는 저술을 권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군이부고』는 낙랑·임둔·현도·진번군의 漢四郡과 이른바 平州·東府 都督府의 二府에 대한 고찰로서, 본디 그런 책이 없었으므로 3)에 해당된다. 『낙랑칠어고』는 『說文解字』에 수록된 낙랑산 물고기에 대한 고찰이므로 낙랑과 당연히 관련되며, 『평백제비』는 나중에 『사군지』 「古蹟」에 ‘蘇定方碑’로 수록되었다. 따라서 유득공이 『사군지』를 편찬하는 데에도 『발해고』처럼 박지원이 권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791년 무렵에는 李德懋와 徐滢修 등이 별도로 『小華叢書』를 기획했는데,

17) 김영진, 「조선 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960~962면. 단 원문의 번역은 박종채(박희병 역),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262면을 참고하여 약간 수정하였다.

이덕무의 손자 李圭景(1788~1856)의 기록에는 74종의 서목이 보이고, 서형수의 조카 徐有渠(1764~1845)의 기록에는 124종 중 62종의 필사를 마쳤다고 한다. 전자의 別史에는 유득공의 저술로 『渤海考』와 『四郡考』가 있고, 후자의 史別에는 유득공의 저술로 『京都雜志』·『漢陽歲時記』·『발해고』와 함께 『四郡誌』가 있다.¹⁸⁾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이규경이 『四郡志』라 하지 않고 『四郡考』라 표기한 점이다. 그는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위의 기록을 포함하여 모두 네 차례 『사군고』라고 하였으므로,¹⁹⁾ 『사군고』는 『사군지』의 오기로 볼 수 없다. 유득공이 박지원의 권유로 『四郡二府考』 등을 준비했다면, 그는 이른바 2府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므로 서명을 『四郡考』로 고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먼저 저술의 준비 과정부터 살펴보자.

일찍이 『사군지』의 집필 시점에 대해서는 그와 중복되는 내용이 『古芸堂筆記』에 나타나므로 1795년으로 추정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²⁰⁾ 그 근거는 『사군지』 「名宦」의 「王景」이 『고운당필기』 권5 「樂浪人」에 나온다는 점과,²¹⁾ 『사군지』 지리 비정의 가장 큰 특징인 진번군 치소 靑縣의 위치를 압록강 밖 興京에 비정한 것이 역시 권5 「二府之誤」에 이미 나온다는 점에 있다.²²⁾ 「낙랑인」과 「이부지오」의 작성 시점은 이들의 앞뒤 기사들의 작성 시점이 을묘년(1795, 정조 19)이므로,²³⁾ 마찬가지로 1795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8) 김영진, 앞의 논문, 971면 및 974면.

19) 한국고전종합DB, 『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4, 東國諸家史類, 東國全史重刊辨證說, 志地辨證說, 小華叢書辨證說. 다만 첫째와 셋째에는 攷, 둘째와 넷째에는 考로 표기상의 차이가 있다.

20) 송기호, 앞의 책, 102면.

21) 『四郡志』 「名宦」 王景 “王景字仲通, 閔之子也. 少學易, 遂廣窺衆書. 又好天文·術數之事, 深沈多伎藝. 辟司徒伏恭府, 時有薦景能理水者. 顯宗詔與將作謁者王吳, 共修作浚儀渠. 吳用景塢流法, 水乃不復爲害. ……”

『古芸堂筆記』 권5, 樂浪人 “後漢書循吏傳, 王景字仲通, 樂浪訥郿人也. 八世祖仲, 本琅邪不其人, 好道術, 明天文. …… 父閔爲郡三老. …… 建武六年(30), …… 閔獨讓爵. 帝奇而徵之, 道病卒. 景少學易, 遂廣窺衆書, 又好天文·術數之事, 沈深多伎藝. 辟司空伏恭府, 時有薦景能理水者. 顯宗詔與將作謁者王吳, 共修作浚儀渠. 吳用景塢流法, 水乃不復爲害. 〈傳止此〉 此段當採入關西志中.” 『고운당필기』의 원문 및 번역문의 표기는 한국고전종합DB를 토대로 약간 수정하였다. 아래도 같다.

22) 각주 28) 및 60) 참조.

23) 『古芸堂筆記』 권5 「洗心臺賞火」, 「復拜檢書」 및 「印進忠武公全書」.

그러나 후술하듯이 유득공의 서문에 따르면 『사군지』의 완성은 1801년 이후이므로, 1795년은 자료 수집을 포함한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처음 沃沮城에 설치되었던 현도군이 夷貊의 침략에 의해 그 치소를 句驪縣으로 옮겼으며, 그 위치를 興京에 비정하는 견해는 『고운당필기』 권2 「北關沿革」에 이미 나온다.²⁴⁾ 「북관연혁」의 작성 시점 역시 그 앞뒤 기사들의 작성 시점이 신해년(1791, 정조 15)이므로,²⁵⁾ 1791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유득공은 『사군지』 저술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간단한 필기를 이때부터 시작하였던 것이다.²⁶⁾

1791년이라는 시점은 이덕무와 서유구 등이 『소화총서』를 기획한 것을 계기로 유득공이 초고본 『발해고』의 체제와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 시작하였던 때와 겹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자료의 나열에 불과했던 초고본에 대해 자료의 추가는 물론이고 지리 부분에서 사료 비판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발해고』의 수정 경험이 한사군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예시로써 『고운당필기』 권5 「이부지오」과 『사군지』 「건치연혁」의 안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① 우리나라의 輿地志들은²⁷⁾ 곧잘 4郡과 2府를 언급하곤 하는데, 4군은 옮지만 2부에 관한 말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의) 우거를 평정하고 4군을 설치하였다. ... 현도군은 얼마 후 이맥에게 침략을 당해 치소를 구려현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흥경 지방이다. 소제 시원 5년(서기전 82)에 진변군을 혁파하였다. 『한서』 「지리지」에 또 임둔군은 없이 현도군과

24) 각주 63) 참조.

25) 『古芸堂筆記』 권2 「子規樓」 및 「小學照註」.

26) 참고로 정진현, 앞의 책, 113면에서 『고운당필기』 권3에서 권6까지에 실린 여러 기사 가운데 한사군을 언급한 것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군지』에 유득공의 안설로 첨부되었으므로, 유득공은 늦어도 1792년부터 한사군에 관심을 갖고서 사망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한 것 같다고 추정할 바 있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가 예시한 「가락국», 「평양수혈», 「마한토실」 등에는 한사군을 언급한 부분이 없다.

27) 한국고전종합DB에서는 원문의 ‘東國輿地’를 ‘동국여지승람’이라고 번역했는데, 『고운당필기』 권1 「古音兒津」·「金使曹士元詩」, 권5 「我書傳於倭」 등에서는 동국여지승람을 ‘輿地勝覽’으로 표기하였다. 더구나 『동국여지승람』에서 2府가 언급되는 것은 2회밖에 없다. 따라서 ‘東國輿地’는 특정한 서명이 아니라 『동국여지승람』이나 『東國輿地志』 같은 東國의 輿地志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낙랑군만 있으니, 이들이 2군인데 어찌하여 2부라고 하는가? 2부라는 것은 平州都督과 東府都督이다. 그런데 후한 때에 어찌 도독이라는 관직이 있었던가? 대개 현도군이 서쪽으로 옮겨간 뒤에 낙랑군에 東部都尉를 설치하여 單單大嶺 밖의 지역을 주관케 하였으니, 곧 함흥 이남에서 강릉 등 연해 지역의 군현에 이르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전의 역사를 자세히 고찰해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다. 이른바 東府는 東部の 와전인 듯하고, 이른바 都督은 都尉의 와전인 듯하다는 것을. 그런데도 다시 평주도독까지 꼬집어 내어 역지로 갖다 붙였으니, 평주는 공손도가 遼東에 웅거할 때 설치한 것이지 후한 때의 일이 아니다.²⁸⁾

② 소제가 현도군을 진번군으로 옮기고, 임둔군을 낙랑군에 병합하니, 이것이 2군이다. 『동국통감』에서 “한나라 소제 시원 5년에 조선의 옛 지역에 있던 平那郡과 현도군 등을 평주도독부로 삼고, 임둔군과 낙랑군 등을 동부도독부로 삼았다.”라고 하니, 이로부터 4군이 합하여 2부로 되었다는 말이 신뢰할 만한 史實이 되어버려, 마침내 평나를 진번의 또다른 이름으로 여겼다. 그러나 『전한서』와 『후한서』의 「본기」 및 「지리지」를 살펴봐도 모두 이런 일은 없고, 군현의 이름에도 이른바 平那라는 것은 없다. 한나라에는 도독이라는 칭호가 없었으니, 그것이 근거없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필시 4군을 병합하여 2군으로 삼고 낙랑군의 7현을 나누어 동부도위에 예속시켰던 데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 한말에 공손도가 요동에 웅거할 때 평주를 설치하였고, 魏나라와 晉나라도 이를 따라서 (평주로써) 현도군·낙랑군·대방군 등을 관할하였다. 唐나라가 安東都護府를 평양에 설치하고, (나중에) 이름을 (안동)都督府로 바꾸어서, 평주로 이동하였다. 그러므로 후대의 역사 편찬자가 (서로 다른 사실들을) 혼동해서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²⁹⁾

28) 『古芸堂筆記』 권5 「二府之誤」 “東國輿地動稱四郡·二府，四郡則是矣，二府之說不可不辨。漢武平右渠，置四郡。…玄菟尋爲夷貊所侵，徙治句驪縣，今興京地方也。昭帝始元五年，罷眞番郡。地理志又無臨屯[屯]，只有玄菟·樂浪，則是爲二郡，何以謂之二府也？二府者，平州都督·東府都督云爾。西漢時，曷嘗有都督之號？蓋自玄菟郡西徙之後，置樂浪東部都尉主單單大嶺以外之地，卽咸興以南至江陵等沿海郡縣是也。細考前史，歷歷可知。所謂東府者，似是東部之訛也，所謂都督者，似是都尉之訛也。而又拈出平州都督，以傳會之，平州者，公孫據遼東時所置，非西漢事也。” []는 원문의 오기를 수정한 것이다.

29) 『四郡志』 「建置沿革」 “按 …… 昭帝徙玄菟於眞番，並臨屯於樂浪，是爲二郡。東國通鑑云。‘漢昭帝始元五年(전82)，以朝鮮舊地，平那·玄菟等郡，爲平州都督府，臨屯·樂浪等郡，爲東部都督府。’自此四郡合爲二府之說，便成信史，遂以平那爲眞番之一名。然考之兩漢書本紀及地志，並無是事，郡縣名又無所謂平那者。漢未有都督之稱。決知其爲無稽之言。此必因四郡並爲二郡，而樂浪七縣分隸東部都尉。漢

가-①과 ②는 모두 4군이 평주도독부와 동부도독부의 2부로 바뀌었다는 우리나라의 여지지들과 『동국통감』의 서술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2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三國遺事』에서 『전한서』를 인용하여 “소제 시원 5년에 조선의 옛 땅에 있던 平那·현도군을 平州都督府로 삼고, 임둔·낙랑군 지역에 東部都尉府를 설치하였다”라는 것이다.³⁰⁾ 그런데 『전한서』에 이런 기사가 없으므로, 즉 사료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낙랑군의 南部都尉와 東部都尉를 오해한 데서 나온 잘못이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의 관찬 사서인 『삼국사절요』·『동국통감』 등이 ‘동부도위부’를 ‘東府都督府’로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조선 시대에는 4군에 뒤이어 2부가 실재한 것으로 오랫동안 잘못 인식되었다. 더구나 『동국여지승람』에서는 평주도독부를 황해도 平山으로 비정하였고,³²⁾ 韓百謙의 『東國地理志』조차 이를 답습하였다.

이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한 이는 南九萬(1629~1711)이었다. 그는 위만조선 이후로 4군-2부-삼한-삼국이라는 기왕의 인식을 답습하면서도,³³⁾ 다른 한편으로 도독부가 도위부의 오기일 뿐만 아니라 사료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³⁴⁾ 뒤이어 李世龜(1646~1700)는 평주도독부가 요동 일대에 있었고, 낙랑·임둔군이 평주도

末公孫度據遼東，置平州。魏晉因之，統玄菟·樂浪·帶方等郡。唐置安東都護府於平壤，更名都督府，徙于平州。故後之纂史者，混同輳輳，有此謬誤爾。

- 30)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二, 二府 “前漢書, 昭帝始元五年己亥, 置二外府。謂朝鮮舊地平那及玄菟郡等 爲平州都督府 臨屯·樂浪等兩郡之地 置東部都尉府(私曰 朝鮮傳則眞番·玄菟·臨屯·樂浪等四 今有平那無眞番 蓋一地二名也)”
- 31) 李丙燾, 「眞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85, 112면.
- 3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1, 黃海道, 平山都護府, 建置沿革 “本高句麗大谷郡(一云多知忽 ○按, 漢昭帝始元五年, 置二外府, 以朝鮮舊地平那及玄菟郡爲平州都督府。今府東牛峯縣聖居山卽古之平那山, 以郡得名, 疑府卽漢時都督府) ……”
- 33) 『藥泉集』 권29 「東史辨證」 箕子 “我國文明之教, 雖曰始自箕子, 而衛氏以後四郡二府三韓三國之際, 瓜分豆割, 日事兵爭, 遺教蕩然, 化爲夷狄久矣。”
- 34) 같은 곳, 眞番 “舊史只據遺事載置二府事, 而不知考諸漢書, 證其有無者何歟? 且遺事云平州都督府·東部都尉府, 而舊史乃於東部之部, 改之以府, 都尉之尉, 改之以督, 名之曰二都督府, 以訛增訛, 其誤轉甚矣。西漢官制, 有部都尉而無府都督。蘇定方之平百濟, 置熊津等五都督府, 遺事之誤, 豈因於唐事之習聞耶? 遺事且曰通典云朝鮮之遺民, 分爲七十餘國, 皆地方百里, 後漢書云西漢以朝鮮舊地, 初置爲四郡, 後置二府, 法令漸煩, 分爲七十八國各萬戶。今按通典與後漢書, 皆無此說。凡遺事所記, 多妄而難信, 此亦可見矣。”

독부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부도독부로 불렸다고 파악함으로써,³⁵⁾ 평주도독부가 자국사와 무관한 존재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을 토대로 하여 安鼎福(1712~1791)도 『東史綱目』에서 2부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는 두 편의 논설을³⁶⁾ 쓰는 한편, 「檀君箕子傳世之圖」에서는 4군 다음에 아예 2부를 2郡으로 대체하였다.³⁷⁾

그렇지만 洪萬宗(1643~1725)의 『東國歷代總目』과 李種徽(1731~1797)의 『東史』는 2부를 여전히 인정하였다.³⁸⁾ 박지원은 이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사군이부고』를 설정하여 유득공에게 관련 기록을 정리하라고 권유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미 유득공은 『발해고』 초고본의 편찬 경험을 통해 관련 기록의 정리만으로는 그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덕무 등의 권유를 계기로 4군과 2부에 대해서도 사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타당성 여부도 고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2부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므로 향후 작업의 결과를 『사군고』로 바꾸었던 것이다.

III. 『사군고』에서 『사군지』로 서명 변경

『사군지』의 집필 시점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1795년 외에 1805~1807년으로 추정된 견해도 있다. 이는 유득공이 한치윤(1765~1814)의 『海東繹史』 서문을 작

35) 『養窩集』 13, 雜著 하, 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 “…… 漢昭帝始元五年, 以朝鮮舊地平郡玄菟等郡, 爲平州都督府, 臨屯樂浪等郡爲東府都督府, 詳載史略以下諸東史, 此所謂二府也. …… 勝覽既以平那山而誤認平州, 久庵又因勝覽而輾轉再誤耶? 況玄菟初在沃沮, 後移句麗, 平山玄菟之間, 初則臨屯間之, 後則樂浪間之, 烏得相合而爲平州都督府乎? 按晉書地志, 平州在禹貢爲冀州, 於周爲幽州, 漢屬右北平, 後漢末公孫度稱平州牧, 魏分遼東·昌黎·玄菟·帶方·樂浪五郡爲平州, 是知平州都督府當在平州界中也, 樂浪·臨屯在平州府之東, 故謂之東府都督府也. 然則二府雖是朝鮮舊地, 一在鴨綠之西北, 一在鴨綠之東南矣.”

36) 『東史綱目』 附錄 卷上 「考異」 二府之誤 및 卷下 「地理考」 平州考.

37) 오영찬, 앞의 논문, 13면에서 「檀君箕子傳世之圖」에 2부가 적기되어 있다고 한 것은 오독이다.

38) 홍만중은 二府의 위치에 대해 비정하지 않았지만, 이종휘는 「四郡二府建置沿革表」에서 “平州卽開原西北, 今三衛福餘之境, 至魏而爲公孫度所據, 以入于慕容燕, 而高句麗亦不能有其地. 惟東府爲句麗南境云.”라고 하여 이세귀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성한 바 있는데, 한치윤의 『해동역사』는 1805년에 일차 완성되었을 것, 그리고 유득공이 『해동역사』의 한사군 관련 기사들을 보고 『사군지』를 썼을 것이라는 두 가지 추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³⁹⁾ 그러나 이 역시 유득공의 『사군지』 서문으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추정이므로, 『사군지』 집필 시점을 그의 사망 직전으로 파악한 점은 타당하지 않다.⁴⁰⁾

더구나 『사군지』가 『해동역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정 역시 따르기 어렵다. 『해동역사』 발해 기사는 수정본 『발해고』를 토대로 그 지향점을 계승하고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므로,⁴¹⁾ 전자의 한사군 기사 역시 유득공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군지』가 유득공의 만년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치윤이 『사군지』를 보았다기보다는 유득공이 1791년부터 모아온 한사군에 대한 자료와 필기 등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서명이 『四郡考』에서 『四郡志』로 바뀐 이유 및 시점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유득공이 박지원으로부터 권유받은 제목은 『四郡二府考』이었지만, 그가 자료의 수집과 고증 과정에서 2부의 실체를 부정한 결과 서명은 『사군고』로 바뀌었다. 이규경도 『사군고』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4개의 필사본의 명칭은 모두 『사군지』이다. 이중 고려대 소장 육당문고본 『사군지』에만 실려 있는 유득공의 서문으로 눈을 돌려보자.

서문에서는 그가 서해 연안 고을에 군수로 나갔다가 燕行을 다녀온 후에 역대 사서에서 관련 기록을 모아 ‘한사군에 대한 기록[漢四郡之志]’, 즉 사군지를 엮었다고 하였다.⁴²⁾ 이미 밝혀졌듯이 유득공은 1800년(정조 24) 8월에 풍천도호부사에 임명되었다가 12월에 파직되었고, 1801년(순조 1) 1월에 朱子書 善本の 구입과 중국 사천·호북 지역의 소요 사태에 대한 탐문이라는 어명을 받아 謝恩使와 함께 연행을 갔다가 6월에 귀경하였다. 따라서 『사군지』를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귀국 직후이다⁴³⁾ 이미 1791년부터 한사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간단한 필기를 작성해

39) 정진현, 앞의 책, 114면.

40) 한편 정진현, 앞의 책, 342면의 연보에서는 본문과 달리 『사군지』의 저술을 1791년에 배치하였다.

41) 김종복, 「수정본 『발해고』와 『해동역사』 발해 기사의 비교 연구」, 『史林』 75, 2021, 117면.

42) 『四郡志』 「四郡志序」 “…… 出守西海之沿, …… 余既觀乎我之西海, 則又游燕中, …… 遂歸而取歷代史之志, 以吾胸中之悅乎其有可會者, 經緯之, 而爲漢四郡之志.”

왔던 만큼 초고 작성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成海應(1760~1839)이 유득공 사후 19년이 지나서 쓴 『사군지』 서문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사군지』를 편찬할 때 ‘원문과 대조하고[考校] 문장을 다듬고[塗乙], (서술의) 득실을 비교하고[較得失] (논지의) 타당성을 토론하며[論臧否] 즐거워했다’고 회상하는 구절이 있다.⁴⁴⁾ 즉 유득공이 이미 작성한 초고를 성해응이 함께 교열하며 토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801년 당시 성해응은 通禮院 引儀로 재직중이었다가 12월에 金井 찰방에 부임하였으며, 이듬해 가을에는 陰城 현감이 되었다.⁴⁵⁾ 따라서 유득공과 성해응이 함께 서울에서 『사군지』를 편찬하던 기간은 1801년 6월~12월 사이로 좁혀진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유득공이 귀국 직후 작성한 초고본 단계의 서명은 『사군이부고』에서 ‘이부’를 삭제한 『사군고』였다. 이규경의 기록은 이 단계의 초고본을 가리킨다. 이 초고본을 유득공은 성해응과 함께 교열하면서 서명을 『사군지』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현존하는 4종의 필사본의 서명이 모두 『사군지』되었던 것이다. 그중 3종의 필사본에 서문이 없으므로 저자는 3종의 필사가 이루어진 뒤에 「사군지 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시차는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유득공이 서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당시에 이미 『사군고』라는 저술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그것은 徐榮輔(1759~1816)의 『四郡考』인데, 여기서의 四郡은 한사군이 아니라 廢四郡을 가리킨다. 폐사군은 주지하듯이 세종 때 압록강 중상류에 설치했다가 단종과 세조 때 방어의 어려움으로 폐지한 閔延·慈城·茂昌·虞芮郡의 4군을 말한다. 『사군고』는 숙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 함경도 지역의 개발에 따라 꾸준히 제기되었던 폐사군 복구⁴⁶⁾ 지지하는 입장에서

43) 김영진,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年譜」, 『大東漢文學』 27, 대동한문학회, 2007, 29~30면.

44) 『研經齋全集』續集 17, 文3, 四郡志序 “余嘗與冷齋柳公惠甫, …… 相與撰次, 爲四郡志, 藏之篋笥. 今距惠甫之歿, 十有九年, 見艸蓁, 想其考校塗乙, 較得失, 論臧否, 以爲笑樂者, 歷歷如昨, 遂感而書其卷首云.”

45) 김영진, 앞의 2007 논문, 30면 및 한국고전종합DB—한국문집총간 해제—연경재전집—행력 참조.

46) 18세기의 두만강 상류 지역의 개간에 뒤이은 함경도 서북부의 압록강 일대의 개발과 폐사군 지역의 邑治 설치 논의, 그리고 폐사군 복구론에 대해서는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

이 지역의 역사와 지리 및 關防 시설, 폐사군 복구 논의, 그리고 폐사군에 인접한 厚州 지역에 대한 정보와 복구 논의 등을 수록한 일종의 정책 건의서라고 할 수 있다.⁴⁷⁾

『사군고』는 현재 2종의 필사본이 전한다. 하나는 일본 東洋文庫에 소장된 2권 1책의 寫印寫本인데,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⁴⁸⁾ 권1의 구성은 범례·圖·表·인용서목이며, 권2의 구성은 연혁·산천·관방·復置議·考誤·厚州紀略이다. 다른 하나는 성균관대학교 尊經閣에 소장된 『靑丘稗說』 20책 『龍飛歌·東國地誌·四郡考·柵中錄』에 수록된 「사군고」인데, 여기에는 ‘徐榮輔 輯’으로 저자가 표시되어 있다. 이 역시 2권 1책이지만, 권1의 四郡圖는 생략되어 있는 抄錄本이다.⁴⁹⁾ 참고로 成海應의 『研經齋全集』 외집 권51, 지리류의 「四郡考」와 「厚州紀略」은 2권 1책본 『사군고』의 권2를 轉載한 것이다.

유득공은 서영보의 『사군고』의 존재를 이미 1793년에 알았다.⁵⁰⁾ 그렇지만 초고 상태로 비장되었다가 1800년(정조 24) 11월에 규장각 직제학에 임명된 尹行恂(1762~1801)이 서영보의 부탁으로 그 서문을 쓰게 된바,⁵¹⁾ 이를 계기로 당시 지

의식』, 경세원, 2000, 152~178면 및 239~250면 참조.

47) 실제로 서영보는 1809년(순조 9)에 평안감사로 재직중에 「강계부방군둔전질목」을 올려 폐사군 지역의 압록강 연변 전체의 개간 허용과 둔전 설치 및 방수군을 두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강석화, 위의 책, 172면).

48)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49)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s://east.skku.edu>)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해당부분은 <https://dcollection.skku.edu/common/orgView/000000170518>), 일찍이 『韓國野史類 續一』, 永信아카데미韓國學研究所, 1979에 수록된 바 있다. 『청구패설』에 대해서는 권석창, 2021 『18~19세기 野史叢書의 文獻學的 研究-『대동패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74~79면 참조.

50) 『고운당필기』 권4, 西海諸島 “癸丑二月二十日賓對, 有一備堂啓曰 ‘西北廢四郡古厚州西南之許多海島, 初或因野人之入居, 海賊之來侵而棄其地. …… 宣川之身彌島·鐵山之大加次里島·假島, 使宣川府使親爲看審, 竝圖形狀聞, 以爲議處.’ 上許之. 是時直閣徐公亦撰四郡考, 引唐志, 定爲渤海之神州, 可謂發前人之所未發. 大抵我東地形, 東北則豆滿, 西北則鴨渚, 東西南三面環海, 是謂二江三海, 其以內尺寸不可棄也.”

51) 『碩齋稿』 권11, 序, 四郡考序 “…… 賞於祕閣, 與徐慶世校書, 因言四郡形便. 慶世呀然笑曰, ‘是余平生志也. 昔年奉使北邊, 登摩雲嶺, 遙望疊山輻輳千里不能絕, 問諸土人, 乃四郡墟也. 毋丘儉·慕容皝父子·馮弘·李世勣橫渠馳馬之蹟, 尙有可以歷覽者. 及歸, 點其疆域, 詮其興壞, 編之爲書, 曰四郡考. 世不我與, 故祕而不敢出. 今子有命矣, 請得子一言.’ 余亦欣然書此以塞之. ……” 윤행일이 祕閣, 즉

식인들에게 『사군고』가 알려졌을 것이다. 그래서 성해응도 이를 전제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조선후기에 지리지의 경우 申景濬(1712~1781)의 『疆界考』 또는 『疆界誌』에서 보듯이 ‘考’와 ‘志’가 혼용될 수 있었다.⁵²⁾ 따라서 유득공은 한사군에 대한 자신의 저술이 서영보의 『사군고』와 제목을 같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명을 『사군지』로 바꾸었던 것이다.

IV. 『사군지』의 저술 목적

『사군지』 「서문」에 따르면, 유득공은 자신의 거주 지역이 禹貢이 설치한 靑州의 변경이자 箕子의 봉토지이자 한사군 중 낙랑 지역이라고 언급한 후, 정조 때 『東國輿地志』를 續撰할 때 자신도 교정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遼左, 즉 遼東 지역을 둘러싼 夷夏간의 영역 변천에 대해 고찰하기 쉽지 않아 의심을 품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⁵³⁾ 여기서 夷夏란 조선과 중국을 의미하므로 『사군지』 편찬의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락인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우선 『동국여지지』의 속찬이란 숙종대의 『동국여지승람』 개정 작업이나 영조대의 『輿地圖書』 편찬과 같이 정조대에 『海東邑誌』란 이름으로 추진된 국가 주도의 전국지리지 편찬 사업을 가리킨다. 아쉽게도 완성되지 못한 채 『海東輿地通載』, 『東國八道郡邑地誌』의 이름만 전할 뿐이다.⁵⁴⁾ 그 편찬 작업이 1789년(정조 13) 6월에

규장각에 근무한 시점에 대해서는 윤행임(김진경 역), 2021, 『석재고』 4, 122면 참조.

52) 이 책은 『旅菴遺稿』 권3 「疆界誌 序」를 통해 서명과 서문만 전해지는데, 1939년부터 간행된 『旅庵全書』 권4에는 「疆界考」가 수록되어 있으며 서문도 「疆界考 序」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대 도서관 소장 필사본의 표제는 『疆界志』이지만 서문은 「疆界考 序」로 되어 있다. 이 필사본은 초고 친필본이지만 표제는 후인이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의 다른 저술인 「四沿考」·「山水考」·「道路考」·「伽藍考」 등과의 명칭상 유사성,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강계고」가 저자가 애초에 의도한 서명으로 보인다(鄭求福, 「朝鮮 後期 歷史地理學의 發達」(初出은 2006), 『韓國近世史學史-朝鮮中·後期篇-』, 景仁文化社, 2008, 341~342면 각주 98)).

53) 『四郡志』 「四郡志序」 “…… 余所居, 禹貢靑州之裔, 箕子之封, 漢四郡之樂浪也. 先朝續撰東國輿地志, 余亦在校正之列矣. 顧遼左之地, 夷夏展縮, 未易究, 蓄疑者久. ……”

54) 배우성, 「정조의 국토인식과 『해행여지통제』」,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시작될 때 유득공은 처음에 강원도를 담당하였지만, 나중에 「산천」 부문으로 바뀌어⁵⁵⁾ 그 교정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사군지』 「산천」에는 오대산, 압록강, 대동강, 임진(강), 한강 등에 대해 「여지지」를 인용한 기사들이 있는데,⁵⁶⁾ 아마도 『해동여지통재』의 일문일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에서 산천을 둘러싼 강역의 변화는 당연히 북쪽에서 일어났다. 특히 조선은 서북쪽으로 요동 지역과 연결되어 고조선 이래로 중원 왕조와 영역상 확장과 퇴각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동국여지지』의 속찬 작업에서 산천을 담당하였던 유득공이 조선의 서북쪽과 연결된 요동 지역의 역사적 추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그는 연행 도중에 요동 별판에서 동북쪽으로

1998, 145~160면 및 김현정, 앞의 논문, 53~55면.

55) 김현정, 앞의 논문, 59면에서 인용한 『內閣日曆』 112책, 上之十三年(1789) 6월 17일에 따르면, 海東邑誌 編纂人員 單子是 도별로 되어 있다. 여기서 原春道の 담당은 前郡守 李義鳳과 檢書官 柳得恭이다(http://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3030_00&vol_no=0112). 그런데 윤성재, 앞의 논문, 59면에서 인용한 『通塞撮要』 권3, 己酉(1789, 정조13) 六月日에 따르면, 전자의 도별 명단이 京都城池·宮闕·苑囿, 壇廟·官署, 各道疆域·形勝·職官, 建置沿革, 山川, 古蹟 등 주제별로 되어 있다. 여기서 山川의 담당은 前郡守 李義鳳과 檢書官 柳得恭이다(한국고전종합DB). 『통색촬요』는 서얼 差待 규정과 許通에 관한 기록을 모아 놓은 책으로, 저자는 성대중·박제가·유득공 등으로 추정된다(한국고전종합DB—통색촬요 해제[필자는 김성우]). 따라서 실무자의 기록을 존중한다면 작업 방식이 중간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6) 『四郡志』 「山川」 “五臺山, 在江陵府西一百四十里, 五峯並峙, 雄秀際天, 漢水發源, 南流入旌善郡.〈輿地志〉”

같은 곳, “鴨淥江, 一云馬訾, 又清河, 又龍灣. 源出咸鏡道白頭山, 南流經甲山府·三水府界, 西北流入平安道古茂昌界, 西南流至楚山府婆猪江,〈案, 卽猪婆江〉自塞外來會, 又西南流, 繞義州城西, 入于海.〈輿地志〉”

같은 곳, “大同江, 一云溟江, 又王城江. 其源有二, 其一出平安道寧遠郡加幕洞, 其一出陽德縣文音山. 其出于加幕洞者, 西南流至江東縣, 其出于文音山者, 西北流來會合流, 繞平壤城南, 又西南流至龍岡縣, 入于海.〈輿地志〉”

같은 곳, “臨津, 源出咸鏡道安邊府永豐故縣防墻洞, 南流入江原道伊川府界, 又南流入京畿朔寧郡界, 西南流繞長湍府, 南至交河郡, 合于漢江.〈輿地志〉”

같은 곳, “漢江, 其源有三. 其一出江原道江陵府五臺山之于筒. 其一出淮陽府金剛山之萬瀑洞. 其一出忠清道報恩縣俗離山之文藏臺. 其出于五臺山者, 南流過旌善郡寧越府, 入忠清道永春縣界, 西流至忠州. 其出于俗離山者, 從槐山·延豐二縣之間, 自南來會, 西北流入京畿驪州界, 至楊根郡. 其出于金剛山者, 南流過楊口縣·狼川縣·春川府, 入京畿加平郡界來會, 自此西南經廣州界西北, 繞京都之南. 又西北流, 至通津府北交河郡南, 臨津江自北來會合流, 至豐德府, 西入于海.〈輿地志〉”

아득하게 구름과 안개가 첩첩히 쌓인 개원開元과 鐵嶺 지역이 옛 부여국의 경계임을 새삼 확인하였다.⁵⁷⁾ 이로써 요동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인 夷夏는 바로 조선과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양국간의 최초의 충돌의 결과인 한사군의 역사와 지리를 정리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득공이 인식하는 자국사 체계에서 한사군은 어디에 위치할까?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논의까지 포함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서문의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즉 『사군지』에서 개진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스스로 거의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대와 시간적 거리가 천여년이나 되니 어느 누가 믿어주겠는가? 믿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또 내 학설을 지킬 뿐이다”라고 하고,⁵⁸⁾ 또 마지막에서 “만약 한대 이후로 자연지리적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나의 학설은 믿을 만하리라”라고 한 발언은⁵⁹⁾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점이다. 『사군지』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이른바 진번재복설이다. 이러한 주장은 『고운당필기』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지만, 『사군지』의 관련 기사와 비교해 보면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① 한 무제가 우거를 평정하고 4군을 설치하였다. 낙랑군의 치소는 조선 현에 두었는데 지금의 평양부이고, 임둔군의 치소는 동이현에 두었는데 지금의 강릉부이며, 현도군의 치소는 옥저현에 두었는데 지금의 함흥부이고, 진번군의 치소는 삽현에 두었는데 지금의 압록강 밖에 있었던 같으니, 이것이 바로 4군이다. 현도군은 얼마 있다가 이맥에게 침략을 받아 치소를 구려현으로 옮겼으니, 지금의 홍경 지방이다. ……”⁶⁰⁾

② 살펴보건대, 동방의 옛 지리는 조선의 북쪽을 구려라고 하고, 동북쪽을 옥저라 하고, 동쪽을 濊라 하고, 남쪽을 韓이라 하였으니, 그 서쪽 요동군은 전 국시대부터 이미 연나라에 귀속되었던 것이다. 한 무제가 우거를 토벌하여 (다

57) 『四郡志』 「四郡志序」 “…… 其過遼之野，坐車中褰帷，東北望杳杳然若雲烟之堆疊。云是開元鐵嶺，古夫餘國之界，又悅乎其有可會者矣。 ……”

58) 각주 12)

59) 『四郡志』 「四郡志序」 “…… 若曰，‘漢以後之山與海，不甚大變云爾’，則吾之說，其信矣乎。”

60) 『古芸堂筆記』 권5, 二府之誤 “…… 漢武平右渠，置四郡。樂浪治朝鮮縣，今平壤府也。臨屯[屯]治東曉縣，今江陵府也。玄菟治沃沮縣，今咸興府也。眞番治雪縣，似在鴨綠江外。是爲四郡。玄菟尋爲夷貊所侵，徙治句驪縣，今興京地方也。 ……”

음과 같이) 4군을 설치하였다. 조선을 낙랑군으로 삼았으니, 지금의 한수 이북에서 關西에 이르렀다. 구려를 진번군으로 삼았으니, 지금의 압록강 밖 흥경 지방이다. 옥저를 현도군으로 삼았으니, 지금의 함경도 南北關이다. 예를 임둔군으로 삼았으니, 지금의 관동 지역이다. ……”⁶¹⁾

앞서 언급했듯이 나-①의 작성 시점은 1795년인데, 여기서 ‘진번군의 치소인 삼현이 압록강 밖에 있었던 것 같다[眞番治雪縣, 似在鴨綠江外]’라는 추정이 나-②에서는 진번군의 위치가 압록강 밖 흥경 지방으로 확정되었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유득공이 진번재복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한서』 지리지에서 玄菟郡에 대한 應劭의 주석인 ‘古眞番朝鮮胡國’에 있으며, 이때의 현도군은 夷貊의 침략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제2 현도군을 가리킨다. 즉 그는 제1 현도군이 옥저의 땅에 설치되었다가 이후 이맥의 침입으로 구려의 서북으로 옮겨간 뒤 진번을 병합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⁶²⁾

그런데 나-①에서는 현도군이 옥저에서 서쪽으로 흥경(지금의 요령성 新賓)에 위치한 구려현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이미 1791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⁶³⁾ 이 구려현을 진번군과 연결하지 못하고 각각 별개의 사실로 파악하였다. 그러다가 나-②에서 양자가 연관 관계에 있다고 파악함으로써 진번의 위치를 흥경으로 구체적으로 비정하였던 것이다.

다만 『사군지』 단계에서도 나-②에 뒤이은 안설에서는 진번군의 치소인 삼현의 위치가 미상인데 장안과의 거리가 7,600여 리라면 지금의 松花江 이동에 있었던

61) 『四郡志』 「建置沿革」 “按, 東方古地理, 朝鮮之北曰句驪, 東北曰沃沮, 東曰濊, 南曰韓, 其西遼東郡. 自戰國之世. 已入於燕者也. 漢武討右渠, 置四郡. 朝鮮爲樂浪, 今漢水以北至關西. 句驪爲眞番, 今鴨綠江外興京地方. 沃沮爲玄菟, 今咸鏡南北關. 濊爲臨屯, 今關東之地. ……”

62) 김성현, 앞의 논문, 33면.

63) 『古芸堂筆記』 권2, 北關沿革 “咸鏡道, 古沃沮之地. 三國志云, ‘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 東北狹, 西南長, 可千里. 北與挹婁·扶餘, 南與穢·貊接’者 是也. 漢武置玄菟之治沃沮城, 後爲夷貊所侵, 徙治句驪縣(今興京), 其沃沮之地屬樂浪東部都尉. 光武六年, 省都尉, 封其渠帥, 爲沃沮侯, 尋爲高句麗所并. ……”

이러한 비정은 『大清一統志』 권36, 興京, 古蹟, 高句驪故城 “在城北, 漢武帝元封四年, 開朝鮮地置元菟郡, 又置高句驪縣爲郡治. 應劭曰, 故句驪國, 魏志, 漢武初以沃沮城爲元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驪西北. ……”을 참고한 결과로 보인다.

것 같다고 하였다.⁶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군지』 서두의 「四郡圖」에서는 삼현의 위치를 압록강 밖의 흥경으로 표시한 것은 ‘7,600여 리’라는 기록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해동역사』에서 한치운은 진번의 위치를 미상이라고 한 데⁶⁵⁾ 반해 韓鎭書(1786~1870)는 흥경 동남쪽 波猪江 좌우 지역으로 비정하면서 삼현과 장안의 거리 7천리라는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⁶⁶⁾ 한치운의 서술은 아직 진번의 위치를 확정할 수 없었던 『고운당필기』 단계의 견해를 따랐다면, 한진서의 서술은 『사군지』와 논조를 구체화시킨 것이다.⁶⁷⁾

진번재복설을 주장한 선학들은 삼현의 위치를 遼界, 요동 경내, 요동, 非今日我國之境 등 막연하게 추정한 데⁶⁸⁾ 비해, 유득공은 흥경이라고 구체적으로 비정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서문에서 “믿어 주지 않더라도 나는 또 내 학설을 지킬 뿐이다”라거나 “나의 학설은 믿을 만하리라”라고 한 것은 예전의 막연한 추정에서 구체적 비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확신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 비정 및 확신에는 성해응과의 편찬 작업, 즉 교열 및 토론이 일조하였을 것이다.

64) 『四郡志』 「建置沿革」 “又按, 眞番郡 …… 魏志 玄菟徙郡句驪西北, 此卽眞番之地. 故漢書地理志玄菟郡註應劭云‘古眞番’者, 是已. 眞番郡治雪縣, 未詳其地, 而距長安七千六百餘里, 則似今在松花江以東. 意者, 玄菟徙郡以後, 沃沮之地可屬樂浪, 而眞番東界諸縣, 夷地太遠, 並棄之爾” 삼현과 장안의 거리가 7600여 리의 전거는 『漢書』 권6, 武帝紀, 元封 3년(서기전 108) 여름 기사에 臣瓚이 인용한 武陵書의 ‘眞番郡治雪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을 가리킨다.

65) 『海東釋史』 권5, 世紀5, 附 四郡事實 “漢武帝元封三年(전108)夏, 朝鮮降, 以其地爲樂浪〈按 治朝鮮縣 今平壤府〉·臨屯〈案, 治東曉縣, 今江陵府〉·玄菟〈案, 治沃沮縣, 今咸興府也 後徙於句驪〉·眞番〈案, 治雪縣未詳〉四郡〈漢書〉”

66) 『海東釋史續』 권4, 地理考4, 四郡, 眞番郡 “…… 今興京東南波猪江左右之地, 是也 …… 〈鎭書謹按, 四郡之前, 已有眞番之號, 與衛氏接壤, 則其在遼東之東·朝鮮之北尤驗. 今興京之南婆猪江左右沿江千里之地, 既非遼東, 又非朝鮮沃沮. 而其地分正, 合句驪四履, 此豈非眞番古地乎? 但臣瓚所云距長安七千里者, 未可準也.〉” 말미의 ‘未可準也’를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문에서는 ‘7천리라고 한 것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지만, ‘未可準信’의 줄임말로 보는 쪽이 타당하다.

67) 그런데 한진서의 비정은 진번을 흥경의 남쪽 修家江 좌우로 본 정약용의 견해(『我邦疆域考』 其一, 眞番考 “眞番之地, 雖不可詳, 要在今興京之南, 修家江之左右”)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68) 김성현, 앞의 논문, 38면.

V. 正統論的 역사 인식에서의 漢四郡의 위치

앞서 살폈듯이 유득공은 요동을 둘러싸고 조선과 중국간의 영역 변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고, 양국간 최초의 충돌의 결과로서 등장한 한사군의 역사와 지리를 정리할 필요성을 갖고 『사군지』를 편찬하였다. 즉 그는 한사군의 주체가 외세임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한사군의 영역과 그 역사를 자국사에서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에 앞서 李瀾도 한나라가 조선 땅을 빼앗아 4군을 만들었으니, 4군은 본래 우리나라[我東]에 속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⁶⁹⁾ 이는 한사군이 조선의 영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본국사, 즉 조선의 역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⁷⁰⁾ 그러나 본국사 또는 자국사의 역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자국사에서 정통으로 설정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흔히 조선후기 역사학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三韓正統論은 그 핵심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 중국에 대해 문화적 대등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檀箕正統論이라고 할 수 있다.⁷¹⁾ 이러한 정통론적 역사인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강목』의 「東國歷代傳授之圖」에서는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신라 문무왕(9년 이후)→고려 태조(19년 이후)→대조선에 대해서만 ‘正統’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속한 다양한 정치체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위만조선이나 4군 및 소국에 대해서는 ‘附’, 삼국에 대해서는 ‘無統’으로 구분하였다. 「凡例」의 ‘統系’ 항목에 따르면, 그 이유를 위씨조선은 찬탈했기 때문이며, 사군은 조선의 옛 땅과 관련되기[係朝鮮舊地] 때문이며, 그리고 삼국은 병립했기에 즉 어느 한 국가에 정통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한사군의 경우 조선의 영역으로서 외국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다시 귀속되었기 때문에⁷²⁾ 자국사의 서술에 포함시킬 뿐이라

69) 『星湖僊說』 권3 天地門, 朝鮮四郡 “漢取朝鮮地爲四郡, 則四郡本屬我東者也.”

70) 오영찬, 앞의 논문, 7면.

71) 하우봉, 「이익」,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창비, 1994, 242~243면.

72) 『東史綱目』 「東國歷代傳授之圖」의 附 四郡에서는 기원전 108년부터 중국에 편입되어[入中國] 318년에 이르러 421년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속하였다[復屬東國]라고 하였고, 「檀君箕子傳世之圖」의 附 四郡과 附 二郡에서는 기원전 108년에 한사군을 두어 중국에 속했다가[屬中國] 313년에 낙랑 등의 지역이 다시 우리나라에 속하게 되니[復屬東國] 모두 421년만에 회복[復]되었다고 하였다(오영찬, 앞의 글, 10~11면). 이처럼 한사군에 대한 인식에는 東國과 中國이 대립적으로 설정되

는 것이다. 요컨대 정통론적 역사인식이란 정통적 존재와 무통적 존재, 그리고 부수적 존재의 삼자가 뒤얹혀 전개되어온 자국사의 전개 과정을 정통을 중심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러한 정통론이 원래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朱子의 正統論에서는 所屬 王朝에 대한 義理가 중시되었다는 점이다.⁷³⁾ 왕조란 기준에서 볼 때, 한사군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통론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1705)은 범례에서 “4군과 2부는 郡 邑에 불과하여 기록할 만한 君長이 없으므로 한 글자 낮추어 기록한다”라고 하여⁷⁴⁾ 정통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유득공이 『東詩萌序』(1774)에서 “단군이 처음 일어나니 人文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기자가 동쪽에 봉해지니 八敎가 베풀어졌다[昔者檀君肇興 人文未彰 箕子東封 八敎斯陳]”라고 한 것은 홍만종이 『동국역대총목』에서 단군을 역사상 최초의 신성한 임금[首出之神君], 기자를 교화를 수립한 성스러운 임금[立敎之聖后]로서 모두 정통으로 파악하는 인식과⁷⁵⁾ 동일하다. 다만 뒤이어 “마한은 남쪽으로 달아나 지리멸렬해서 이름이 들리지 않았다[馬韓南奔 蔑裂無聞]”라고 한 것은 삼한정통론에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군지』에서 한(韓)은 한사군의 판도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그 명칭은 기씨(箕氏)에서 연유한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⁷⁶⁾ 나중에는 삼한정통론을 인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는 『발해고』 서문에서 고려가 삼국의 역사를 편찬한 것이 옳다고 전제한 후,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와 발해가 각각 남쪽과 북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을 것을 비판하였다. 정통론에 비추어 보면 ‘無統’

어 있다.

73) 李佑成, 「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初出은 1966), 『韓國의 歷史認識』 하, 創作과批評社, 1976, 357~358면. 물론 여기서는 “성호의 삼한정통론은 주자와 같이 소속왕조에 대한 義理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일정한 계통을 세워보려는 것이 그의 의식의 基調”였다고 단서를 달았다.

74) 『東國歷代總目』 「東國歷代總目凡例」 “一 四郡二府, 乃郡邑之制, 無君長可記, 故並低一字書之.”

75) 韓永愚, 「17세기 후반~18세기초 洪萬宗의 會通思想과 歷史意識」, 『韓國文化』 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1, 405면.

76) 『四郡志』 「事實」 “又案, 韓地, 爲樂浪南裔, 漢時不入版圖, 其稱韓者, 似由箕氏. 而箕氏之稱韓, 又似在於南奔金馬以前也. ……”

을 三國뿐만 아니라 南北國까지 설정한 것인데, 이는 문무왕 9년 이후의 신라에 정통을 부여한 기존의 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고려가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했어야 한다는 당위는 태조 19년 이후의 고려에 정통을 부여한 기존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다.⁷⁷⁾

요컨대 유득공은 檀箕正統論의 입장에서 新羅正統論만 부정함으로써 발해사를 자국사의 한 주체로서 인정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삼국과 남북국은 무통에 속하더라도 그 대상은 모두 왕조로서 자국사의 한 주체들이지만, 한사군은 그 주체가 중국으로 자국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왕조가 아닌 군읍에 불과한 부수적인[附]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제기된, 즉 한사군이 삼국과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가졌거나, 한사군을 자국사의 정통으로 파악했다고 보는 견해는 정통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심각한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사군지』 「事實」 말미에 제시된 유득공의 견해를 살펴보자.

살펴보건대, 우리 동국의 땅은 靑州의 변방이자 禹貢의 嶠夷이자 殷周 때의 孤竹國의 이웃이다. 箕子 聖人이 와서 거주하자 (주나라) 武王이 즉시 (조선 왕으로) 봉했으니, (주나라 太王의 장자인) 太伯이 (남쪽의) 오나라 왕이 된 것과 같다. …… ① 漢나라 초에 위만이 차지한 바 되어, 무제가 군사를 일으켜 격파하고 사군을 설치한 것은 三代之 옛 강역을 수복한 것이다. …… (쑤나라) 영가(307~313)의 난세에 중원이 쇠퇴하니, 고구려가 비로소 현도군을 얻어내고 또 낙랑군을 함락시켰다. 백제는 그 남쪽 경계의 대방군 지역을 약탈하고, 신라는 (單大)嶺의 바깥 경계로부터 (낙랑군의) 東部(都尉)의 7현 지역을 파고 들었다. ② 여러 사서들을 두루 고찰해 보면, 4군이 합하여 2군이 되고, 2군이 늘어서 3군이 되고, 3군이 變하여 삼국이 되는 큰 흐름을 볼 수 있다. 唐나라 이후로 (고구려) 高氏를 계승하여 낙랑과 현도군을 차지한 것은 渤海 大氏였다. 五代 이후로부터 낙랑 지역은 高麗에 귀속되었지만 현도 지역은 女眞에 잃어버렸다.⁷⁸⁾

77) 유득공 저, 김종복 역, 앞의 책, 19~20면.

78) 『四郡志』 「事實」 “案, 我東之地, 爲靑州邊裔, 禹貢嶠夷, 殷周之際, 孤竹之隣也. 箕聖來居, 而武王就封之, 猶太伯之句吳也. …… 漢初, 爲衛滿所有, 武帝興師擊定, 置四郡者, 收復三代舊疆也. …… 永嘉之世(307~313), 中原淪喪, 高句麗始得玄菟, 又陷樂浪, 百濟掠其南界帶方之地, 新羅自嶺沿穿其東部七縣之地. 歷考諸史, 可見四郡合爲二郡, 二郡增爲三郡, 三郡變爲三國之大略也. 自唐以後, 繼高氏而

먼저 이러한 견해들은 ② “여러 사서들을 두루 고찰해 보면, 4군이 합하여 2군이 되고, 2군이 늘어서 3군이 되고, 3군이 변하여 삼국이 되는 큰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를 4군→2군→3군→3국으로의 직접적인 계승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變하여’의 의미를 간과 내지 오독한 것이다. 낙랑·임둔·현도·진번의 4군→낙랑·현도의 2군→낙랑·현도·대방의 3군으로의 변화는 한 군현에서의 양적 변화에 불과한 데 비해, 고구려가 현도와 낙랑을 함락시키고 백제가 대방의 땅을 약탈하고 신라가 낙랑의 동부 7현을 잠식한 것은 질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설혹 3군→3국으로의 계승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삼국은 정통론에서 무통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득공은 물론이고 정통론에 입각해 자국사를 파악하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한사군을 정통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① “한나라 초에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한 바 되어, 무제가 군사를 일으켜 격파하고 사군을 설치한 것은 三代의 옛 강역을 수복한 것이다.”라는 구절을 “조선은 …한사군 설치로 삼대의 옛 강역을 수복하게 되었다”라고 직역한 견해에서는 “僭主 위만이 기자조선의 왕위를 찬탈한 시기를 문명의 단절로 이해하고, 한이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군현을 설치하면서 문명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의역하고, 이를 근거로 유득공이 조선에 중화의 정통성을 부여하였으므로 한사군을 자국사의 정통으로 파악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⁷⁹⁾ 그러나 ‘三代의 옛 강역을 수복한’ 주체는 무제이므로, 이 구절은 한 무제가 4군을 설치함으로써 하은주 삼대의 강역을 회복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조선이 한사군의 설치를 통해 삼대의 문명을 회복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VI. 맺음말

최근 柳得恭의 『四郡志』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러나 그의 발해사에 대한 저술의 제목이 『渤海考』인 반면 한사

跨據樂浪·玄菟二郡者，渤海大氏。自五季以來，樂浪屬於高麗，玄菟失之女真矣。”

79) 장병진, 앞의 논문, 207~208면.

군에 대한 저술의 제목이 『四郡考』가 아닌 『사군지』라는 점에서 ‘고’에서 ‘지’로의 전환에는 지리고증이 곧 역사학이라는 인식 전환을 보여준다는 견해나, 유득공이 자국사 인식 체계에서 한사군을 정통으로 파악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자와 관련하여 『사군지』의 집필 배경과 준비 과정을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유득공은 1784년에 박지원에게 한사군과 관련된 저술로서 『四郡二府考』의 편찬을 권유받았다. 그리고 1791년 무렵에 이덕무 등에게 비슷한 권유를 받았는데 그 결과물은 기록에 따라 『사군고』 또는 『사군지』로 전한다. 한편 유득공은 국내외 사서에서 발해사 관련 사료들을 수집·정리하여 『발해고』를 1784년에 일단 완성하였지만, 1791년 무렵에 내용상의 미진함과 오류를 대폭 수정하였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유득공은 한사군에 대해서도 자료의 수집, 정리에만 그치지 않고 비교적 짧지만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筆記를 1791년부터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2부의 실체를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애초에 계획했던 『사군이부고』는 『사군고』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801년에 초고를 완성한 후에 성해응과 교열하고 서문을 작성할 즈음에는 서명을 『사군지』로 다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廢四郡에 대한 徐榮輔의 저술로 이미 『四郡考』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득공의 저술에서 ‘고’에서 ‘지’로의 전환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후자와 관련하여 『사군지』의 집필 목적을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유득공은 『동국여지지』 속찬 작업에 참여한 이래로, 요동을 둘러싼 조선과 중국간의 영역 변천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 온 한사군이 평소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임을 새삼 깨닫고 『사군지』로 정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1795년 무렵에는 진변군의 치소가 압록강 밖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을 『사군지』에서는 흥경으로 확정하였다. 그래서 『사군지』 서문 말미에서 자신의 학설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던 것이다.

한편 한사군은 조선의 영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자국사의 역사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역사학의 특징인 정통론적 역사 인식에서 정통의 계보는 단군 조선→기자조선→마한→신라 문무왕(9년 이후)→고려 태조(19년 이후)→대조선으로 설정되었다. 여기에 삼국은 무통, 한사군과 소국은 부수적 존재로 설정되었다. 정통과 무통이 모두 왕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사군은 군현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유등공은 한 4군→2군→3군으로의 양적 변화와 달리 3군→3국으로의 질적 변화를 구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신라정통론을 부정하고 신라와 발해를 무통으로 설정하는 남북국론을 주장했다고 해서, 한사군까지 자국사의 정통으로 파악했다고 보는 주장은 정통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문헌

- 『古芸堂筆記』, 『東國歷代總目』, 『東史綱目』, 『碩齋稿』, 『四郡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藥泉集』, 『養窩集』, 『研經齋全集』, 『泠齋集』, 『海東釋史』
- 유득공 저, 김윤조 역, 『누가 알아주랴』, 태학사, 2005
- 유득공 저, 김종복 역, 『정보 발해고』, 책과함께, 2018
-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 김경화, 「『사군지』 ‘사실’조를 통해 본 유득공의 한국고대사 인식」,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022
- 김성현, 「『사군지』 「건치연혁」조에 나타난 한사군 위치 비정의 특징」,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022
- 김영진, 「조선 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 _____, 「유득공의 생애와 교유, 年譜」, 『大東漢文學』 27, 대동한문학회, 2007
- 김종복, 「수정본 『발해고』와 『해동역사』 발해 기사의 비교 연구」, 『史林』 75, 수선사학회, 2021
- 김현정, 「18세기 후반 역사지리 인식과 유득공의 『사군지』」,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022
- 박미선, 「『사군지』 「명환」·「인물」조의 특징과 편찬의도」, 『역사와 실학』 79, 역사실학회, 2022
- 박철상, 「신발굴 『古芸堂筆記』 검토--稿本の再構 및 修政 과정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41, 대동한문학회, 2014
- 배우성, 「정조의 국토인식과 『해행여지통재』」,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 송기호, 「柳得恭의 생애와 저술」,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오영찬, 「조선 후기 고대사 연구와 漢四郡」, 『역사와 담론』 64, 호서사학회, 2012
- 윤성재, 「『사군지』 「토산」과 유득공의 북방 인식」, 『역사와 실학』 79, 역사실학회, 2022
- 李佑成, 「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의 正統論의 展開」, 『韓國의 歷史認識』 하, 創作과批評社, 1976
- 장병진, 「유득공의 역사 인식과 『사군지』」, 『한국사연구』 201, 한국사연구회, 2023
- 鄭求福, 「朝鮮 後期 歷史地理學의 發達」, 『韓國近世史學史-朝鮮中·後期篇』, 景仁文化社, 2008
- 정진현, 「한사군의 역사 『사군지』」, 『실학자 유득공의 고대사 인식』, 신서원, 1998
- 하우봉, 「이익」,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창비, 1994
- 韓永恩, 「17세기 후반~18세기초 洪萬宗의 會通思想과 歷史意識」, 『韓國文化』 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1

The Study of the Sagun-ji(四郡志) by Yu Deuk-gong(柳得恭)

Kim, Jong-bok

Recently, research on the Sagun-ji of Yu Deuk-gong has been conducted intensively.

This paper attempted to broaden its understanding by additionally discussing the following two things. One is that the book title was changed from the Sagun-yibu-go(四郡二府考) to the Sagun-ji through the Sagun-go(四郡考). The other is that because the Four Han Commanderies was established in the realm of Joseon, Yu Deuk-gong included it in the scope of Korean history, but that does not mean that it was recognized as the legitimacy of Korean history.

Key Words : Yu Deuk-gong Sagun-ji, Sagun-go, Sagun-yibu-go, the Four Han Commanderies, the legitimacy of Korean history